

## ■ 화제의 뉴스 ■

**국토부, 중소기업 해외건설공사 수주 지원 나선다**

중견·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.

지난 12월 15일, 국토교통부는 중견·중소건설업체들에게 해외건설공사 수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, 신한은행 등과 '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업무협약(MOU)'을 체결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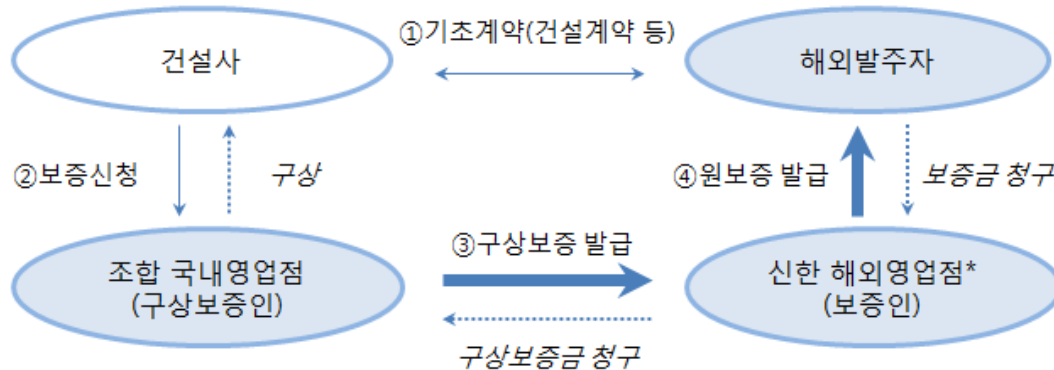
주요 협약내용은 (i) 해외보증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, (ii) 건설사 공동 자문 및 금융 주선, (iii) 상호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이며, 지원 규모는 3억 달러 내외입니다.

그동안 중견·중소건설업체는 외국의 현지은행으로부터 담보제공 없이 보증을 받기가 어려워 복보증(건설사가 현지은행에 보증서 발급 요구 → 현지은행은 다른 은행의 복보증 요구 → 국내은행은 건설공제조합 등의 추가 복보증 요구) 등을 이용하였는데,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공사 수주 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었습니다. 해외건설협회가 작성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실적을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해외수주실적누계에서 중소기업의 수주누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9.5%에 불과하여,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·보증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<sup>1</sup>.

이번 MOU 체결로 인해 중견·중소건설업체들은 현재보다 30% 이상 저렴하게 공사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
<sup>1</sup>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, 금융·보증 지원이 가름, 빈재익(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), (건설저널, 2016년 4월)

## [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흐름도]



국토교통부는 “이번 MOU 체결로 그 동안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가 많았던 금융분야의 걸림돌을 걷어내게 되어 중견·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“아시아·중남미 등 신흥국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저유가 영향으로 중동 산유국까지도 금융을 동반한 사업에 관심을 갖는 등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산업과 금융이 결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## [관련 기사]

- [건설이코노미 - 국토부,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 지원 나선다\(2016. 12. 15.\)](#)